

우리협회, '세월호 참사' 구호성금 지원 및 합동 조문

우리협회는 지난 5월 15일 김영수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건축사회 김인철 회장 및 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안산에 위치한 정부합동분양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협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 등을 위해 시도건축사회,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 중이며, 성금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단체에 기탁할 예정이다.

경기도건축사회 '양평지역건축사회' 설치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4월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기존 동부지역건축사회와 양평지역건축사회를 분리·설치하기로 의결했다.

분리된 양평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는 21명으로, 사무소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440-4번지이다.

우리협회, 2014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기관' 재선정

우리협회가 2014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기관'으로 재선정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4일 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교육기관 재선정을 위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축사협회는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윤대길 위원장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발표회 이튿날인 4월 25일 협회를 포함한 계명대, 명지대, 전북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5월 중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기관 협약을 체결한 후, 6월 초에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공고를 내고 7월 초에 개강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지난해 첫 수상자를 배출한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이 올해에도 우수한 신진건축사를 발굴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은 건축설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창의력 및 기술력 등 설계자의 역량을 중시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력 부족 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진건축사의 능력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한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의 기반을 제공하여 건축설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제전이다.

응모자격은 공모일(5월 16일) 현재 만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중 본인 단독설계로 완공된 작품이 1개 이상인 건축사다. 지난 5월 21일~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참가자 수는 총 41명으로, 지난해 대비 20% 증가했다. 신청자는 6월11일~20일까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1차 포트폴리오심사 및 2차 현장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상(대상 1점, 최우수상 2점)과 대한건축사협회장상(우수상 7점 이내)의 수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며, 중앙·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국토부 시행 각종 공모전·시범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대상 담당자(02-3415-6841, 6849)

건축계 소식

제6회 심원건축학술상 수상작 발표

심원건축학술상의 제6회 수상작으로 이연경(연세대) 교수의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本町 :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성부 일본인 거류지의 공간과 사회」가 선정됐다. 건축의 인문적 토양을 배양하기 위해 설립된 심원문화사업회(이사장 이태규)는 지난 2008년부터 건축역사와 이론, 건축미학과 비평 분야의 전도유망한 신진학자 및 예비 저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심원건축학술상을 시행하고 있다. 심사를 맡은 배형민(서울시립대), 안창모(경기대 대학원), 전봉희(서울대) 교수는 "개항 이후 도시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인 거류지'의 실체를 공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당선작이 관심하는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자료의 분석과 담론에 남아있는 문제는 향후의 작업을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수상자 이연경 교수는 "우리 도시에는 이미 그들이 남겨 놓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지금의 도시를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거류지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들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은 6월 27일 오후5시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층 소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 초청 강연회가 함께 진행된다. 수상작에게는 상금(교료) 1,000만원이 수여되며, 해당 원고에 대한 출판이 지원된다.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5월 20일(화)~6월 13일(금)까지이며, 건축사, 건축사시험응시자격자, 건축분야기술사 등 건축관련 종사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산업화 및 대중화에 대비하고, 한옥건축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알찬 교육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강사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본 사업에 3년 연속 교육기관으로 선정, 올해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선발기준에 따라 수강인원은 48명 내외로 제한하며, 개강 후 약 23주간 190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의 목적에 맞는 설계실무 중심으로 실시되며, 실무교육의 강화를 위해 이론교육 외에도 설계스튜디오, 답사,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구성했다.

아울러, 교육 수료 후에도 교육생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지원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5시간)이 인정된다. 교육은 7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및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위탁교육팀(02-3415-6879)

2014년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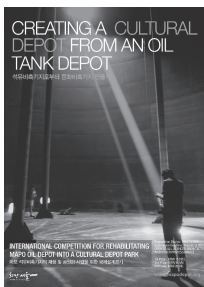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옥문화원은 2014년도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사)한옥문화원이 주관하는 2014년도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양성과정」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옥 설계와 시공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회가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하나다.

한옥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한옥 활성화와 함께 한옥 신축수요가 늘어나면서 한옥 설계, 시공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업무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계·건축계·국가중요무형문화재·문화재수리기능사(대목) 등 우리나라 한옥 분야 최고의 강사진이 교육의 전 과정을 이끌게 된다.

교육기간은 전문 건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이며, 한옥총론, 한옥시공과 관리의 이론과 실습, 특강, 현장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5월 19일(월)~6월 13일(금)까지이고, 선발 인원은 25명이다. 선발자 발표는 6월 17일 개별 통보 및 (사)한옥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문의 : 한옥문화원(02-741-7441, urihanok@naver.com)

서울시,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 공모



서울시는 그동안 수립한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탱크와 주변의 토지자원을 활용,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현상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은 5월 13일(화)~8월 12일(화)이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아이디어공모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환경과 재생을 주제로 하는 시민의 장소'이며, 공연·강연·

정보교류·전시·체험 기능 도입을 제안했다. 큰 틀에서는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매봉산 속에 5개의 거대한 석유탱크가 매설된 산업유산으로서 갖는 장소적 가치와 석유탱크 내부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석유비축기지를 중심으로 이 일대 10만,510㎡를 아우르는 하나의 친환경 공원을 설계하면 되며, 내부시설은 전체 연면적 5,400㎡ 이내에서 ▲공연 ▲정보교류 ▲전시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설계하면 된다.

5인 이내 1팀을 이뤄 공동응모하면 되며, 단독 응모도 가능하다. 이때 1명은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포함돼야 한다. 서울시는 총 13작품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1등 당선작(1작품)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2등작(1작품)에게는 5,000만원, 3등작(1작품) 2,000만원, 가작(10작품 이내) 1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된 작품은 8월 20일 기술심사를 시작으로 8월 21일~23일까지 본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고, 9월 12일~19일까지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국내외 건축 및 조경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는데, 특히 지난해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이토 도요가 위촉됐으며, 국내에서는 조성룡 교수(성균관대), 김승희 교수(서울대) 등이 위촉됐다.

참가등록 및 공모관련 세부내용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 공모 전용 홈페이지(www.mapodepo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간안내

현대건축재료

조준현 저 | 620쪽 | 기문당



다양한 건축재료들은 건축사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며 건축의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 재료는 건축물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물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건축재료는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다양한 재료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속성과 재료가 갖는 의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재료에 대한 지식과 방식의 적용은 건축을 더욱 더 발전시킬 것이다. 이 책은 독자에게 현대건축재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전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통찰력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료가 가지는 물성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펴낸 것이다.

못된 건축 : 도시를 살리는 건축 도시를 망치는 건축

이경훈 저 | 312쪽 | 푸른숲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원으로 도시를 연구하는 이경훈(국민대) 교수는 2011년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이후 펴낸 두 번째 책 「못된 건축」에서 도시의 건축을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독해법을 알려준다. 건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들려주는 가이드북인 셈이다. 건축과 도시,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따스하고 친절한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애매모호하게 에두르지 않는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서울

의 대표 건축을 꼭 집어 설명하고, 서울을 살리는 건물로 DDP와 동십자각 앞의 트윈 트리타워를 내세운다. 건축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건물은 랜드마크와 흉물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건물이기 때문이다. [출판사 로고]